

3월 르완다 소식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10~1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이십니다. 태양으로 인해 만물은 소생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태양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당신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후원교회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심을 믿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소식 및 기도 제목)

1. 르완다에는 ‘Umusaraba uhuza Abakristu’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곳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과 기도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한국과 르완다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임을 깨닫게 합니다.

2024년 4월 7일은 1994년 4월 7일에 시작된 투치족 대학살을 추모하는 30주년 기념일인 Kwibuka 30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추모행사가 이어집니다.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는 당시의 정치적 분열과 민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종 간의 갈등과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갈등을 부추기거나, 학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민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던 비극적 사건입니다. 현재 르완다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과 사회적 화해와 종교적 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르완다가 상처와 갈등을 잘 극복하고 아프리카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르완다는 4월부터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우기가 시작됩니다. 4월 중에는 제가 출석하고 있는 Isano교회와 함께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사 교육(4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사 지원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21일 영어예배 말씀을 증거합니다.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르완다 강 일 웅 선교사